

제약, 2006년 20% 가까이 성장

대신증권, 처방약 시장 20-40%대 확대 ... 2005년 경상이익 급증

국내 제약산업은 2006년에도 처방약 시장의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.

대신증권에 따르면, 2006년 처방약 시장규모는 2005년에 비해 16% 증가해 2005년 17.5%와 비슷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.

특히, 고혈압 치료제, 당뇨병약, 골다공증 치료제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.

2005년에는 동아제약, 유한양행, 한미약품 등 주요 8개 제약기업의 매출총액이 2조2473억원으로 전년대비 10.9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영업이익은 3083억원으로 14.3% 늘었으며 경상이익은 3213억원으로 22.4% 증가했다.

2005년 약효군별 성장률은 혈압강하제 20.4%, 순환기계용약 24.4%, 소화성궤양용제 29.1%, 당뇨병약 23.9%, 동맥경화용제 49.3%, 대사성 의약품 43.1%, 소화기관용약 13.9%, 해열진통 소염제 7.7%를 기록했다.

8사는 2006년 매출이 11.4%, 영업이익이 15.8%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.

<화학저널 2006/01/05>